

<宗 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중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깊은
삶을 살자이다.

淸州韓氏報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 모임 개최 “인터넷족보는 족보사상 최고의 문화유산”



인터넷대동족보 개통 축하모임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촬영:元教)

중앙종친회(회장 甲洙)는 족보사상 최초로 한글과 한자를 병기(併記)하여 구축, 계사년(癸巳年) 음력설에 맞춰 개통한 「인터넷대동족보」 원년(元年)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전 국무총리 甲洙일가, 전 합참의장이며 예비역 육군 대장인 民求일가, 중앙회 陽命상임고문 등 100여명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장을 겸

하고 있는 甲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차에 걸친 편찬사업 기간을 통해 수단 신청을 받아 음력설에 맞춰 개통된 우리 청주한씨의 「인터넷대동족보」는 우리나라 280여 성씨 중 가장 방대하고 기능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족보사상(族譜史上)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이와같이 훌륭한 「인터넷대동족보」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편찬팀 임원들을 비롯하여 종파문중회장들, 광역시·도종친회 회장들과 모든 일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甲洙회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모바일족보」(모바일·Mobile은 이동한다는 뜻)도 개발하여 우리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를 「스마트폰(휴대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가장 앞서가는 「인터넷대동족보」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말에 수단 접수를 마감하기는 했지만 오는 5월 말까지의 교정기간까지는 수단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아직까지 수단신청을 하지 못한 일가들께서는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昇洙 전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제작상 어려움이 많은 「인터넷대동족보」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甲洙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인터넷대동족보」는 오늘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陽命 상임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인터넷대동족보」의 성공적인 개통은 甲洙회장을 비롯한 편찬팀 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와 독려를 하고 각 종파회장과 지역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치하했다.

民求 전 합참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주한문의 「인터넷대동족보」가 여려 성씨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제작, 개통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한 편찬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陽洙 중앙회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인터넷대동족보」의 개통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한글과 한자로 병기된 「인터넷대동족보」를 통해 후손들이 선조의 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駿錫 편찬소위원장은 편찬상황을 설명하면서 “「인터넷대동족보」가 개통되기까지는 종파회장들과 지역회장들의 노고가 커다”고 치하하고 “올가을에 제작될 보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 많은 수단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하모임에서는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서 공로가 많은 종파회장과 지역회장 4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제작업체인 뿌리미디어 대표 相億일가가 회의장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에 대한 장점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시연(試演)하여 많은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

▶관련기사 2면

「인터넷대동족보」수단신청 5월말까지 접수 교정기간동안 미신청 일가들 편의 위한 조치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2012년 11월 말에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올 음력설에 맞춰 전면 개통하면서 제3차 편찬사업을 일단 마무리한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는 2013년 5월 말까지의 교정기간을 거쳐 올 중추절(주식)에 맞춰 보책(譜冊)을 발간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보다 많은 일가들의 수단을 수록하여 명실상부한 「인터넷대동족보」를 구축하기 위해 교정기간이 끝나는 5월 말까지 미신청 일가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수단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현재도 수단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인터넷

대동족보」 편찬사업은 1, 2, 3차로 나누어 실행되었으며,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의 제1차 편찬사업 기간 중에는 수단접수 인원이 2만 6,961명,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제2차 편찬사업 기간 중에는 수단접수 인원이 2만 5,424명,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제3차 편찬사업 기간 중에는 4만 2,183명이 수단신청을 했다.

이름만 등재된 인원을 포함한 입보인원 총수는, 제1차 편찬사업에서 68만 6,038명, 제2차 편찬사업에서 69만 6,038명, 제3차 편찬사업에서 70만 8,98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甲洙회장, 종파·지역회장 4명에 감사패 「인터넷대동족보」사업에서의 공로 치하



甲洙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영수회장, 선교회장, 창선회장. (촬영:元教)

검교참판공파종친회 영수회장
충성공파종친회 鮮敎회장
문양공파종친회 상일회장
인천광역시종친회 昌燮회장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장을 겸하고 있는 甲洙중앙종친회장을 지난 2월

20일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인터넷대동족보」 개통 축하 모임에서 「인터넷대동족보」 제3차 편찬사업에 종파 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공로를 치하하여 검교참판공파종친회 영수회장, 충성공파종친회 鮮敎회장, 문양공파종친회 상일회장, 인천광역시종친회 昌燮회장 등 4명의 종파 및 지역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난곡로 · 난곡교 확장공사에 총 56억원 당초 지원액 25억원 보다 31억원 증액



인터넷대동족보 개통 축하모임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촬영 元教)

시조탄생유지(遺址)를 「淸韓閣」(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으로 성역화한 데 이어 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淸韓閣」으로 진입하는 난곡로와 난곡교 확

장 및 포장공사는, 중앙종친회가 대외적으로 노력한 보람이 있어 당초의 예산 25억원보다 정부와 충청북도 및 영동군의 예산 지원이 31억원이나 증액

되어 한층 더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고 甲洙중앙회장이 지난 3월 8일 중앙회 회장단회의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이 두 공사 중 난곡리 진입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정부 예산 지원 10억원으로, 난곡교 확장 및 보수공사는 충북도에서 15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이 준비중에 있었다.

그러나 甲洙회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3월 초순에 들어 난곡교 확장 및 보수 공사에 11억원의 충북도 예산지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가 26억원으로 늘었고, 난곡로 확장 및 포장공에는 영동군 예산 20억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두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의 25억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56억원으로 늘어났다.

난곡로와 난곡교의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淸韓閣」가까이까지 대형버스의 입·출입이 쉬워지게 된다. 난곡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두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청주한씨와 난곡리 주민들간의 유대관계는 한층 더 강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淸韓閣」보존·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두 공사에 지원되는 정부와 충청북도 및 영동군 예산 56억원 외에도 시조성역화사업 때 시조탄생유지 전면을 흐르는 난곡천 복개공사에 10억원의 정부예산 지원을 받은 것을 합치면 그동안 시조성역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66억원이며 기성전(箕聖殿) 보수공사에 지원된 3억원을 합치면 모두 69억원에 이른다.

정보화시대 후손들을 위하여 인터넷족보와 모바일(휴대폰)족보는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20일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모임에서 뿌리정보미디어 대표 韓相意(사진)일가가 스크린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교육, 법률자문, 의료서비스, 과학, 게임, 동호회 활동, 쇼핑, 기업 홍보 등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받아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기업체, 관공서, 학교, 단체, 병원 등 모든 곳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기업체와 단체를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는 사업을 하든지 어떤 단체를 운영하든지 홈페이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종친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여러 종친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 중인 곳도 있고 계획 중인 종친회도 있다. 한발 앞선 종친회에서는 족보까지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족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휴대폰)족보도 병행하여 구축하는 문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족보를 편찬하는 종친회 중 90% 이상의 종회에서 譜冊 발간과 더불어 인터넷족보, 모바일족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요즘 젊은 후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종친회에서도 시대에 부응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종친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과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인터넷족보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문의 후손으로 일체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란,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입력하는 즉시 족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최첨단(最尖端) 족보를 일컫는다. 보책(譜冊)은 20~30년 단위로 빨간하나 「인터넷족보」는 구축(構築)한 후에도 출생, 사망, 행적(行跡) 변경 등에 따른 수단(收單)을 365일 연중(年中) 계속하여 접수받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새로운 족보를 구축해 주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종친회에서 홈페이지와 전자(CD-ROM)족보, 인터넷족보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미 여러 종회(宗會)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천에 부응하여 종친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자(漢字)와 족보를 잘 모르는 후손들에게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과 문화유산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提供)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족보」까지도 종친회 홈페이지에 구축해 놓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족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족보」를 구축한다고 하여 보책(譜冊)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후손들은 한자와 족보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족보에 대하여 큰 관심도 없다. 그렇다고 젊은 후손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젊은 후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후손들이 쉽고, 빠르고, 흥미롭게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과 혈통이 수록된 족

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문화와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종친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 및 모바일(휴대폰)족보를 구축(構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종친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 및 「모바일족보」구축사업은 종친회의 그 어떤 종사(宗事) 보다도 우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빠짐없이 뿌리교육을 받는다. 옛날처럼 숙제를 주어, 본(本)이 어딘지? 시조가 어떤 분인지? 파(派)와 세(世)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뿌리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최근에는 학급별로 컴퓨터실에 모여 각 문중에서 구축한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를 통하여 뿌리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다. 같은 반에 우리 청주한씨 손자, 손녀들이 몇 명 있을 경우 누구는 인터넷족보에 수록이 되어 열람되는데 유독 나의 손자, 손녀만이 자신의 족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상상외로 크리라고 생각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우리 어른들은 흔히 이야기 한다. 임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뿌리교육과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 각 가정과 학교에서 시켜주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뿌리교육과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일수록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인 어른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진리이다. 따라서 족보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등재하고 아이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조님의 훌륭한 경륜을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오늘의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족보도 진화(進化)한다. 컴퓨터와 인



相意日加

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책을 만드는 문종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자(e-book)족보 또는 인터넷족보, 모바일족보를 만드는 문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어,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는 글로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족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족보는 종친간의 화목과 조상승배, 후손들 뿐만 아니라 교육과 효(孝) 교육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호주제(戶主制)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가 따로 헤어져 다른 성으로 살다가 장성한 후 근친혼(近親婚)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자기의 뿌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족보는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밖에는 따로 없다.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는 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및 휴대폰을 통하여 이름을 입력하는 즉시 자기의 족보를 찾아 열람할 수 있고 ② 실시간으로 자기의 직계를 볼 수 있으며 ③ 일가간에 촌수 계산이 되며 ④ 영정(影幀), 가족사진, 묘소 등 다양한 사진을 족보와 함께 열람할 수 있으며 ⑤ 관직, 관청, 옛 지명도 검색할 수 있으며 ⑥ 파별(派別), 세별(世別), 인구통계, 배우자통계, 이름통계 등의 다양한 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도 있어 한자와 족보를 잘 모르는 후손들도 흥미롭게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과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인터넷족보」에 반드시 수단을 올려 후손들에게 승계해 주기를 바란다.

충청북도 · 영동군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청주한씨 시조 탄생지 영동(황간) 난곡리」 표제로

책자와 CD 발간 … 시조 위양공과 淸韓閣 크게 부각

충청북도와 영동군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는 지난 1월 말 「청주한씨 시조 탄생지 영동(황간) 난곡리」라는 표제로 「충청북도 마을사 조사⑬」 책자(281쪽)를 발간하는 한편 책자의 내용을 수록한 CD도 제작, 반포(頒布)했다.

이 책자에서는 청주한씨 시조탄생 설화 등 난곡리와 청주한씨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특집하면서 청주한씨 시조 위양공(威襄公 · 謹蘭)과 시조탄생유지(遺址)를 성역화한 「淸韓閣」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책자 표지에는 중문(中門)을 통해 시조 위양공의 유지비(遺址碑)와 웅장한 석비각(石碑閣)이 보이도록 촬영된 「淸韓閣」 현판이 걸린 화려한 색채의 삼문(三門) 사진이 게재되었고, 제2장 「청주한씨 시조 탄생지」에서는 제1절 「시조탄생설화」, 제2절 「청주한씨 개관」, 제3절 「난곡리와 청주한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화보(畫報) 특집에서는 여러 면에 걸쳐 시조(始祖) 위양공의 영정(影眞)을 비롯하여 시조묘 전

경, 「淸韓閣」전경, 시조탄생유지비와 석비각, 유허비(遺墟碑), 세일재, 신도비, 무농정, 방정(方井), 제단비, 학산면 서곡 청주한씨 세거 명비와 영모재, 심천면 마곡리 청주한씨 세거비와 재실과 납골당, 학산면 서산 청주한씨 효열비 등 수 많은 유적들이 게재되어 마치 청주한씨를 소개하는 책자처럼 보인다.

이 책자는 제1장 난곡리의 역사와 지명, 제2장 청주한씨 시조 탄생지, 제3장 난곡리 세거성씨(世居姓氏) 제4장 난곡리와 임진왜란, 제5장 난곡리와 6.25, 제6장 소이산 봉수대, 제7장 종교시설과 전래신앙, 제8장 농경생활 및 유물, 제9장 난곡8경과 시, 제10장 난곡리 문화유적, 제11장 난곡리의 민속, 제12장 난곡리의 생활상(현재) 등으로 편찬되었으며, (사)충북 향토문화연구소(소장 이춘택), (사)영동향토사연구회(회장 윤주현) 주관하에 10여명의 연구원들이 3,200만원의 조사경비를 들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여의 조사활동 끝에 출간되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가
발간한 책자표지(왼쪽)와 CD (오른쪽)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 모임에 종파 · 지역회장들, 축하 화환 보내와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인터넷대동족보」 개통 축하 모임에는 각 종파종친회 회장들과 광역시 · 도종친회 회장들이 10여개의 축하 화환을 보내와 축하 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아 주었다. 특히 경기도종친회 光傳회장은 회환 외에 축하 성금으로 30만원을 헌성했다. 축하 화환을 보내온 종파와 지역종친회 회장들은 다음과 같다.

▲ 삼재관리위원회 東錫회장 ▲ 충성공파종중 鮮敎회장 ▲ 감사공파종중 檀洙회장
▲ 서울특별시종친회 駿錫회장 ▲ 부산광역시종친회 동경회장 ▲ 대구 · 경북종친회 燉變회장 ▲ 인천광역시종친회 창설회장 ▲ 대전광역시종친회 甲洙회장 ▲ 경기도종친회 光傳회장 ▲ 경기종친회 회원 일동

201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공고

- 일 시 : 2013년 5월 11일 (토) 오전 11시
- 장 소 : 시조부군 묘전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 참석범위 : 선발된 장학생 및 국내외 거주 종원
- 식전행사 : 시조부군 묘전에서 고유제(告由祭)
- 참고사항 :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참석하여 직접 수령해야하며 불참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02-720-6370~1 (중앙종친회)

2013년 3월 일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韓 甲 淑
청한장학후원회 회장 韓 陽 命

알림

-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를 받아보시는 일가 여러분 종보 구독료가 1년에 2만원입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보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앙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 유익한 매체(媒體)입니다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 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종친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얹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 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보 편집실〉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모임에서 난동한 3명에게 「정권」징계 결정

승욱 3년, 상훈 5년, 학수 3년

중앙회장단회의, 만장일치 의결

중앙종친회(회장 甲洙)는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전 국무총리 昇洙일가, 전 합참의장이며 예비역 육군대장인 民求일가, 陽命상임고문 등 10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 웨딩홀에서 개최된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모임에서 난동(亂動)을 행사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청주한문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정관 제10조(징계) 및 징계규정에 의거, 승욱 예빈윤공파 회장에게 정권(停權) 3년, 상훈 예빈윤공파 고문에게 정권 5년, 학수(예빈윤공파) 일가에게 정권 3년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장단회의는, 백춘 중앙회부회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백춘 부회장 주재하에 징계동의안을 심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 전원은 “업무를 방해하고 종친회나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일별백계로

징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징계규정 제5조(조치)는 “정권 처분된 자는 정권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일체의 임원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임원직에 있는 자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동의안의 징계사유는 “승욱, 상훈, 학수일가 등 3인은 2013년 2월 20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1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개통 축하 모임이 거행되기 직전 甲洙 중앙회장에게 폭언 및 폭행은 물론 물리적 행위로 물병과 막걸리병 등을 투척하고 지팡이를 휘둘러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회의 방해는 물론 청주한문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해종(害宗)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승조돈목과 종사 발전을 위해 만부득이 정권 징계를 함으로서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날의 징계 결정은, 정관 제10조(징계) 1항 “본회의 종원이 다음 각 호의 1



징계위원장인 백춘 중앙회 부회장 사회로 징계동의안을 심의하는 중앙회 회장단회의.

에 해당한 때에는 회장은 회장단회의에 회부하여 결의를 거친 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취해졌으며, 다음 각호는 ①정관 제9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②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④본회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자 ⑤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훼손한 자로 되어 있다. 또한 징계규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를 ①계고 ②정권 ③제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권은 자격정지 2년 이상 5년 이내 회원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일가들(예빈윤공파)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6교대동보에 예빈윤공을 9세에서 7세로 입보한 것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함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현지에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정하고, 그 때까지는 본래대로 9세로 환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판단을 수용한데 대한 반대의견을 펴오던 끝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무강왕 · 왕비 춘향대제 봉행

4월 24일 ‘익산쌍릉’에서 거행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춘향대제가 오는 4월 24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57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엄숙하게 봉행된다. 중앙종친회와 현지의 팔봉종친회에서는 일가들의 많은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 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

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되므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씨(奇氏)가 되었다.

4월 10일~12일 삼재 시향일

東錫회장, “많은 첨석 바랍니다”

추·모·봉(追·慕·鳳) 삼재(三齋) 관리위원회(회장 東錫)는 오는 4월 10일(음력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남 영광에 있는 삼재에서 봉행되는 시향에 전국의 일가들이 가족동반으로 많이 참석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삼재조(三齋祖)에 대한 시향은, 첫날인 음력 3월 1일에는 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추원재(追遠齋 ·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에서, 둘째날인 음력 3월 2일에는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 ·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의 모원재(慕遠齋)에서, 셋째날인 음력 3월 3일에는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 · 광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의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잇달아 봉행된다.

중앙종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4월 14일은 기성전 제향일

중보수 준공식도 거행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건국한 문성대왕(文聖大王)을 추모하는 2013년도 제향이 오는 4월 14일(음력 3월 5일) 오전 11시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소재 기성전(箕聖殿)에서 기성회(箕聖會 · 회장 樸泰) 주관하에 봉행되며 중보수 준공식도 거행된다.

기자(箕子)의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祠堂)으로 증평군 향토문화유적 제2호인 기성전은 정부 국고보조금 예산 3억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9월 9일 보수공사가 완공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청한산악회 남한산성 산행

2월의 정기산행(24일 · 일)은 수도권 인근 교통이 편리한 남한산성(460m)으로 다녀왔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522m)의 해발 460m 고원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새지로 1971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외침을 막기 위해 쌓았던 것을 후세에 여러 번 고쳐오다가 조선 광해군(1608년) 때 본격적으로 개축되었다고 한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피신하여 1만 2천명의 병사와 분전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성내 최고봉인 산정상에 오르면 멀리 인천지역의 낙조를 비롯하여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을 연출

하는 곳이라 하는데 당일 등산로 곳곳에 많은 눈과 빙판으로 정상을 못 오른 아쉬움은 있으나 수어장대에서 바라본 인근지역의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낀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사의 중요 요충지로서 민족자존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에서 때마침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많은 인파 속 흥에 묻혀 고유의 민족놀이가 펼쳐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인근 모란시장의 다양한 모습에서 삶의 생동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어서 사적 57호로 지정된 남한산성으로의 금번 산행은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산행이었다. (글: 중앙회 鍾仁상무)

“장학기금 35억 조성 최선 다하기로”

201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5월 11일

(재)청한장학회 이사회

(재)청한장학회(이사장 甲洙中陽종친회장)는 지난 3월 8일 오후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감사보고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201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5월 11일 오전 11시 시조묘역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甲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행권의 이율이 해마다 낮아짐에 따라 장학기금의 과실금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우선 현재의 장학기금 24억여원을 35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사진들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청한장학회는 이와 관련하여 3,000만원으로 설립된 단위장학회의 기금에서 수입되는 금융이자 수익으로는 장학생 1명의 장학금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1월 15일 이사회에서 단위장학회 설립기금의 하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한장학회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1개 단위장학회 기금 14억 5,482만원(전체장학금의 60%), 중앙종친회 및 각 시·도종친회 기금 9억 5,328만원(40%)으로 총 24억 81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있다.



청한장학회 2013년도 제2차 이사회, 중앙회 鐘^고상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단위장학회 설립에 관해서는 정관 9조 보칙 41조 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위장학회는 장학기금 5,000만원 이상 출연자로 구성하고,

출연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금액은 재단 운영경비를 차감한 후 단위장학회에 귀속도록 하여 장학생 추천 및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만수일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 세제전문 변호사로 법학교수도 역임



변호사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한만수(58년생·문정공파)일

가가 지난 3월 13일 박근혜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되었다.

만수일가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법학연구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대선캠프의 행복추진위에서도 활동했다.

한진현일가, 제2차관으로 승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에서



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승진, 발탁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통상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진현일가는 전남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캔자스대학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사 25회에 합격한 후 동력자원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관계에 입문, 뉴욕총영사관 사무관,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 국무조정실 기후대책기획단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했다.

允東일가, 서예전에서 잇단 수상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允東일가는 지난해 10월 15일 고양시 문화원 주최 서예대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차지한 데 이어 12월 1일에는 제11회 대한민국 기로 예술대전에서 대상, 12월 28일에는 제26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 대전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연거푸 3회의 영광스런 수상을 했다.

윤동일가는 이밖에도 ①대한민국금파서 예술대전 입선 7회, 특선 2회, 명필상 1회 ②2010년도 제7회 한국전통서예대전 입선 2회(行隸書) ③2011년



도 (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휘호대회 특선, 대상 ④ 2012년도 제11회 대한민국 기로 미술대전 삼체상(三賞)

⑤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 대전 입선 6회, 특별상 ⑥ 고양 어르신 서화 대전 특선 4회, 입선 2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재)청한장학회 在瑞감사, 활발한 詩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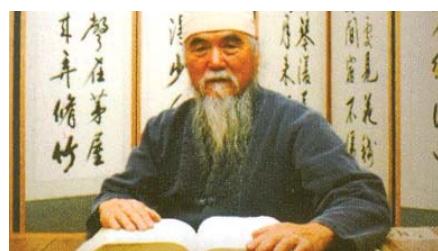
(재)청한장학회 在瑞감사(전 서울시 서대문구 종친회장)는 한맥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 등단한 이래 서울서대문구 문인들의 모임인 「서대문문인협회」이사, 한맥문학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서정문학회 부회장 등을 재임하면서 활발한 시작(詩作)활동을 하고 있다.

在瑞일가는 지난 2012년 12월 서대문문화원에서 발행한 문예지 「서대문문화마당」에 「고향 생각」, 「가을차 한잔 하실래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 3편의 시를 발표하는 한편 「서대문문인협회」에서 행하는 문예지 「서대문문학」에 도 「가을길」, 「안산 둘레길」 등 2편의 시

를 발표했으며, 「산 넘어 저곳에는」 등의 시집도 펴냈다.



彰河일가, 「이놈아! 콩이 팔되나」 출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마니산인(摩尼山人)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彰河일가(회양공파)는 지난 1월 「이놈아! 콩이 팔되나」라는 저서를 펴냈다. 창하일가

는 서문에서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든 반성(참회, 회개)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모든 사회의 잘·잘못은 나의 잘못으로

시작하여 가정이 깨지고 결손가정이 된다, 그 곳에서 모든 사회악이 파생되니 나를 참으로 잘 지켜 나 하나쯤은 잘 못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말고, 나 하나의 작은 잘못이 불행의 불씨가 되어 전 사회가 불바다가 된다”고 설파했다.

개인증보비 (1~2월)		운영회비 (1~2월)	
이 름	금 액	이 름	금 액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100	기호(서울 도봉구)	20
덕문(서울 서초구)	100	기황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20
문수(충남 서천군)	100	덕수(서울 금천구)	20
삼랑 이사(서울 관악구)	100	도수(충남 청양군)	20
수정(서울 광진구)	100	도영 이사(인천 중구)	20
청명 이사(경기 기사업이사)	100	돈희(서울 서초구)	20
황우(경기 고양시)	60	동규(경기 평택시)	20
고석(충북 청주시)	50	동석 부회장(정당공파회장)	20
광호(경북 안동시)	50	동진(경기 평택시)	20
규협(대전 중구)	50	두경(전남 나주시)	20
기권(서울 성동구)	50	두만(경북 안동시)	20
기성(경기 군포시)	50	두원(경기 시흥시)	20
동옥(전남 나주시)	50	만수(경북 영천시)	20
범석(인천 계양구)	50	만홍(서울 노원구)	20
영진(제주 제주시)	50	만희 이사(서울 금천구)	20
우선 이사(서울 서초구)	50	명희(광주 서구)	20
원석(경북 안동시)	50	문교(충북 청주시)	20
윤호(경북 안동시)	50	민석(경기 의정부시)	20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병덕(경기 화성시)	20
김동 이사(충북 충주시)	30	병오(경기 과천시)	20
규호(광주 북구)	30	병준 이사(서울 관악구)	20
기석(서울 강동구)	30	병진(전북 남원시)	20
만정(경기 고양시)	30	봉수(광주 남구)	20
상복(경기 안성시)	30	상곤(경북 구미시)	20
상식(경기 부천시)	30	상구(서울 양천구)	20
상욱(서울 송파구)	30	상근(충남 서천군)	20
상원(서울 노원구)	30	상기(경기 양주시)	20
상준(경기 군포시)	30	상복(전북 익산시)	20
상하 이사(충남 청양군)	30	상봉(서울 강남구)	20
상호 이사(충남 부여군)	30	상분 이사(경기 수원시)	20
석훈(경북 칠곡군)	30	상선(경기 용인시)	20
성교(충북 음성군)	30	상설(충남 천안시)	20
술희(경북 구미시)	30	상수(충남 서산시)	20
영규(부산 부산진구)	30	상원(경기 광명시)	20
영상(경기 파주시)	30	상일 이사(서울 노원구)	20
영석(경남 합천군)	30	상준(경기 군포시)	20
영전(대전 중구)	30	상철(경기 양주시)	20
용관(서울 송파구)	30	상철(대전 서구)	20
용수(경기 고양시)	30	상태(서울 도봉구)	20
운동 이사(경기 김포시)	30	상태(서울 은평구)	20
의백(전남 순천시)	30	상태(인천 강화군)	20
익수(경기 고양시)	30	상훈(경기 성남시)	2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	상훈(경기 수원시)	20
재영(대구 수성구)	30	석구(경남 밀양시)	20
정식(서울 동대문구)	30	석도(경기 구리시)	20
증윤(전남 나주시)	30	석재(서울 구로구)	20
창우(서울 송파구)	30	석홍(서울 은평구)	20
택수(서울 서초구)	30	성우(경남 진주시)	20
평전(경기 수원시)	30	성준(서울 종구)	20
경남(부산 서구)	20	송전 이사(경기 이천시)	20
경동(서울 송파구)	20	순(서울 성동구)	20
경석(경기 시흥시)	20	승구(경기 성남시)	20
경희(서울 강남구)	20	양석(충남 당진군)	20
공구(충북 청원군)	20	양설(전남 화순군)	20
공희(경기 용인시)	20	영성(충북 청주시)	20
광근(인천 남동구)	2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20
광률(부산 수영구)	20	영수(경남 김해시)	20
광우(대전 서구)	20	용구(경기 김포시)	20
귀동(경기 부천시)	20	운석(충남 서천군)	20
규덕(경기 부천시)	20	원교(대전 서구)	20
규상(경기 김포시)	20	원석(서울 구로구)	20
규성(인천 계양구)	20	윤교(경북 포항시)	20
기대(경기 이천시)	20	윤구(충북 청원군)	20
기대(서울 강동구)	20	윤수(충남 서천군)	20
기덕 이사(충남 당진시)	20	은택(서울 은평구)	20
기삼(광주 서구)	20	응섭(전남 보성군)	20
기수(전북 임실군)	20	인석(경기 용인시)	20
기창 이사(충남 당진시)	20	인수(서울 강북구)	20
기춘(서울 양천구)	20	임명찬	20
합 계		9,300	
단체증보비 (1~2월)		장학기금납부 내역 (1~2월)	
이 름	금 액	고유번호	이 름
1936	판관공단우전학회	20,000	70,000
55	이원공단우전학회	1,000	33,000
1977	창영(경기 여주군)	300	300
454	복섭(전남 강진군)	200	3,320
884	정수(광주 동구)	100	310
118	태진(경북 구미시)	100	1,700
510	기권(서울 성동구)	50	580
514	영전(대전 중구)	50	45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500
460	종대(경기 하남시)	50	700
258	철수(서울 관악구)	50	2,700
608	영수(경남 김해시)	30	330
728	희수(경기 고양시)	30	260
1976	병남(전남 나주시)	20	20
413	원교(대전 서구)	20	80
1676	철수(경기 시흥시)	20	210
1578	한술(경남 의령군)	20	100
1968	명규(경기 고양시)	10	30
1760	봉희(서울 광진구)	10	17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20	29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	290
합 계		22,140	
단체증보비 (1~2월)		일반잔조현성금 (1~2월)	
이 름	금 액	이 름	금 액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600	기호(서울 도봉구)	20
창영 이사(경기도이사)	100	기철 이사(경기도이사)	100
기춘(서울 양천구)	20	기탁	800

병사공파 문중 고문서 155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531호 지정

경상대학교(경남 진주시)가 소장하고 있는 청주한씨 병사공파 문중의 고문서(古文書) 155건이 지난 1월 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1호로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17~19세기의 것으로, 교지류 58건, 호구관련 문서 79건, 분재기 12건, 기타 6건 등 총 155건이다.

이들 자료는 주로 조정에서 주요 관직을 지냈던 韓範錫(1672~1743)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 인물의 교지류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나 경관추고함답(京官推考緘答) 등의 자료가 남아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경상남도 당국은 이 자료들이 경남 서부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청주한씨 문중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고 : 정우)

대구·경북종친회 신년교례회 “청장년부 조직, 지원하기로”



희석회장이 사해인사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종친회(회장 煙燮)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 대구시내 파동 청한회관에서 임원들과 일가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계사년 신년교례회를 갖고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명문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화합과 단합으로 종사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모

임에서는 회관도 훌륭하게 건립하여 기반이 완전히 다져졌으므로 단합하여 보람된 일을 해나가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앞으로 젊은 세대를 많이 영입하여 종친회 청장년부를 조직, 종사운영에 큰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5월 4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내실있게 치르기로 했다.

진도군종친회 10차 정기총회



전남 진도군종친회(회장 용구)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군내 소재 서울웨딩홀에서 출가한 딸들 30여명을 포함한 90여명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안의 종사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앞으로 일가들의 종사에 대한 참여도를 높

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종친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용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가 여러분들의 참석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진도군 종친회가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2202-04-033585 / 예금주: 한양명

삼재관리위 9대회장에 東錫회장 재선출

鍊朱·在潤감사 연임 … 사업계획·예산안 의결



앞줄 왼쪽 두번째가 동석회장, 세번째가 회천고문

삼재관리위 2013년도 정기총회

삼재(三齋)관리위원회(회장 東錫)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영광읍 소재 삼재회관에서 希天 전회장, 炳遠고문을 비롯한 50여명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9대회장으로 東錫 현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 연임하도록 했으며 鍊朱·在潤 감사도 연임하도록 의결했다.

東錫회장은 회장 수락인사를 통해 “책임과 소임을 충실히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삼재

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종원간의 화합목을 위해 일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에 귀감이 되는 삼재관리위원회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希天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저의 진여임기 1년을 성실히 운영해 온 東錫회장에게 박수를 보내다”고 치하하고 “삼재관리위원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삼재조(三齋祖)의 수호 및 운영관리에 일가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멀리 경남 창원에서 참석한 仁東일가는 축사를 통해 “삼재관리위원회의 운영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종사문제는 후손들이 동참하여 협조와 송조정신을 가지고 끝쳐야 한다”고 격려했다.

대전시종친회, 제68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광역시종친회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많은 회원들과 중앙회 백준부회장, 成龍부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68차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종회가 끝난 후에는 2부 행사로 鐵柵(擲柵·윷놀이)대회를 갖고 종친간의 우애를 다졌다.

甲洙대전시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임진년은, 시조탄생유지인 난곡리 마을의 환경개선사업과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淸韓閣』을 건립하고, 시조묘역과 세일재도 보수하고, 「인터넷대동족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 청주한문의 역사적 과업이 이룩된 아주 뜻 깊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이는 甲洙종친회장의 훌륭한 지도력과 편찬팀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일가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준 중앙회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전의 명소인 뿌리공원에 세워져 있는 청주한문의 조형물을 새롭게 바꿔 뿌리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청주한문이 삼한갑족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현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즉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 일단 마무리

-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 마감
-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말까지 구축 완료
- ③ 2013년 2월 중순 음력설에 맞춰 전면 개통
- ④ 2013년 5월 말까지 교정기간 · 수단도 접수
- ⑤ 2013년 9월 한가위에 맞춰 보책 발간 예정

- 「인터넷대동족보」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
- 「인터넷대동족보」는 후손들이 원합니다 -
-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의 후손이 됩니다 -

● 지난 2010년 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인터넷대동족보」는 2012년 6월 편찬사업을 재개하여 2013년 1월 말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2월 중순 음력설에 맞춰 개통하였습니다.

● 편집이 완료된 「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2013년 9월 중순 한가위(추석)에 맞춰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집(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이번에 수단 신청을 하지 않은 일가들께서는 「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었으며, 2013년 9월 한가위에 맞춰 발간할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보책(譜冊)에도 등재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대동족보」 검색 요령

- ① 「인터넷」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② 화면의 여러 항목중에서 「인터넷대동족보」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대동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연결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에 전화 (02-720-63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도 위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 우리 「한글인터넷족보」의 주요 기능과 특징

- ① 직계 · 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②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국 · 한문을 병기,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④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⑤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수단금은 다음과 같이 접수했습니다.

-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입니다.
- 1건 기준 50인 이상 단체로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 수수료는 1매당 12,000원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 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X15cm=4인치 X 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한글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종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한글인터넷족보」 수단지에 기재된 내용들
 - (1) 연도 표시
 -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예) 1980년 2월 15일 생, 1980년 2월 15일 졸.
 - (2) 학력 · 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 · 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평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生,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 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를,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 ①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 ②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 ③ 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 ④ 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 ⑤ 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顛舛)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 ⑥ 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 지 기다려야 한다.
- ⑦ 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종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 ⑧ 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⑨ 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 ⑩ 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⑪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크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크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